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원불교 교육의 역할

고시용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The Roles of *Won*-Buddhist Education to Cope with the Polarization

Ko, Shiyong

Wonkwang University

kwgksy@wk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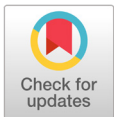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octrine and history of *Won*-Buddhism in order to overcome the polarization that has emerged as a task of the times, and suggests the role and direction of *Won*-Buddhism in terms of education. First of all, the doctrinal basis of *Won*-Buddhism to overcome the polarization phenomenon can be said to be direct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parents, the education of the children of Korean compatriots, the education of the other children of Sayo, the evolutionary therapy of the weak, the diseased society, and its treatment. They see the strong and the weak as a concrete way to win-win and promote. In addition, the specific role of *Won*-Buddhism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the underprivileged was examined by focusing on educational activities.

Won-Buddhism has established educational institutions at various levels, including Wonkwang Academy, a school corporation, including the Savings Union, Dialect Work, Relief Works for War Compatriots, and the Hangeul Dissemination Movement.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Hankyoreh Middle and High School, the first alternative school in Korea, as well as the specialized alternative school for North Korean defectors, is highly valued. At the same time, the project for the first-year enterprise of Wonkwang University and the educational support project for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of Samdong International and Africa Children's Association are very noteworthy.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y have not developed or actively operated concrete and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and ways to overcome such characteristics as original Buddhism, such as the operation of a modern model that succeeded the savings union to directly overcome the polarization phenomen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world and economic view based on monism, develop concrete and continuous social activities, and seek ways to strengthen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religious civil society groups.

Keywords: polarization, *Won*-Buddhism, An Ill Society and Its Treatment, Wonkwang University, Hangeure High School.



OPEN ACCESS

KJRE. 2020 February, 62(1): 1-14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00001>

Received: January 14, 2020

Revised: February 2, 2020

Accepted: February 18, 2020

Copyright: © 2020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언

오늘날 세계적인 공통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兩極化, polarization)¹⁾는 이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양극화 현상은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하위계급이 중산층으로 계급 지위를 상승시킬 수 없게 되며,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중산층이 형성되었으나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해고가 벌어지고 미비한 사회복지제도로 실업과 고용 불안이 만연하게 되어 신빈곤층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²⁾ 권수저·금수저·흙수저 논쟁은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헬조선(지옥같은 한국)’이라는 자조(自嘲)에 어느 누구도 쉽사리 반론을 펴지 못하는 실정이다.

양극화 현상은 크게 “소득 불평등의 증가, 중산층³⁾의 감소, 빈곤의 심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이 발생되어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든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통계청의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⁴⁾를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표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평균근속기간, 평균취업시간, 월평균임금 부문에 있어서 모두 열악한 현실에 놓여있다. 2019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64만3천원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172만9천원)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316만5천원)에 대비하면 54.6%에 불과하며 2009년 정규직·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대비 56.8%와 비교할 때 2.2% 하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차이는 2009년 3월 기준 935,000원에서 2019년 8월 기준 1,436,000원으로 벌어졌다. 2019년 연평균수입으로만 계산해도 17,232,000원이라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계속 누적됨으로 인하여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가계부채의 증가로 파생되며 빈곤의 심화로 이어져서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으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

*조사기간의 차이에 따라 2009~2011년은 3월 기준, 2012~2019년은 8월 기준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근속기간 (개월)	임금근로자	59	59	61	64	67	68	68	70	71	73	71
	정규직	77	77	79	82	85	86	88	89	91	93	94
	비정규직	23	23	26	28	30	30	28	29	30	31	29
평균취업시간 (시간)	임금근로자	45.6	45.0	45.2	39.2	38.3	38.1	39.1	38.1	38.1	36.6	35.9
	정규직	48.1	47.9	48.0	41.4	40.6	40.1	41.3	40.5	40.7	39.3	38.8
	비정규직	40.8	39.1	39.6	34.9	34.2	33.9	34.3	33.2	32.7	31.2	30.8
월평균임금 (만원)	임금근로자	185.4	194.6	202.6	210.9	218.9	224.0	230.4	237.2	243.0	255.8	264.3
	정규직	216.7	228.9	236.8	246.2	255.1	261.1	270.2	279.9	285.1	300.9	316.5
	비정규직	123.2	125.3	135.6	139.8	143.4	145.9	147.3	149.8	156.9	164.4	172.9

이러한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파란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1916년 4월 28일 한반도에서 개교한 원불교의 입장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태산 대종사(박종빈, 1891~1943, 이하 ‘소태산’이라 칭함)는 「사회와 도량을 따로 보는 것은 소승의 생각이요 독선의 소견이니, 큰 견지로 본다면 사회의 부정이 곧 도량의 부정이요, 도량의 부정이 곧 사회의 부정이라, 도량의 부정만을 제거하여 사회에 옮기고자 하는 것이 어찌 원만한 일이라 하리오」⁵⁾고 하였다. 더욱이 소태산의 가르침을 따라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맹세한 아홉 제자들에 의해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를 내걸고 원불교가 개교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교정신구현을 위해 노력한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원불교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원불교의 교리와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원불교 교육의 관점에서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역할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양극화 현상의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정치의 정상화와 함께 일관된 국정철학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의 관리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다.

II.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원불교 교리

1. 사은

소태산은 현실사회를 파란고해로 진단하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⁶⁾을 원불교 개교의 동기로 천명하였다. 아울러 ‘법신불 일원상(法身佛 一圓相), 사은(四恩)·사요(四要), 삼학(三學)·팔조(八條)’를 신앙과 수행의 주요교리로 체계화하였다. 특히 일원상의 진리에 입각하여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로 밝힌 사은(天地恩·父母恩·同胞恩·法律恩) 중에서 부모은과 동포은이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교리로 해석된다.

부모은은 나의 생명을 낳고 길러주심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신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큰 은혜를 말한다. 따라서 부모은에 대한 보은의 강령은 ‘무자력자(無自力者) 보호의 도’이다. 부모님께 심지(心志)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리고 부모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은 물론이요,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고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면 결과적으로 세세생생 거래 간에 혹 내가 무자력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衆人)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양극화 현상에 대입해보면 자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는 은혜를 베풀자는 것이다.

동포은은 같은 겨레나 민족만이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한 일체생령을 의미하며, 동포의 도움·의지(依持)·공급이 없으면 나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동포은에 대한 보은의 강령은 ‘자리아타(自利利他)’⁷⁾이다. 모든 동포들은 서로 자리아타의 관계로서 상호 도움이 되고 은혜의 관계이다. 따라서 사농공상 등 무슨 일이든지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아타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만약 부모은과 동포은에 대한 배은을 한다면 세상의 배척을 받고 양화가 끼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가정·사회·국가·세계는 싸움·혐극·반목·전쟁으로 점철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자리아타는 오늘날 양극화 현상의 폐단을 예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일 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만일 부모에게 배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은을 하였건마는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요,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양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세세생생 거래 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⁸⁾

우리가 만일 동포에게 배은을 한다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움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혐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니라.⁹⁾

2. 사요

양극화 현상은 불합리한 차별제도와 결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태산은 불합리한 차별제도를 지적하고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평등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인류가 다 같이 실천할 요긴한 네 가지 법으로서 사요(自力養成·智者本位·他子女教育·公道者崇拜)를 제창했다.

자력양성은 자력을 길러 부당한 의뢰생활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세상에 유익을 줌과 동시에 의뢰생활로 인해 근본적인 인권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지자본위는 신분이나 계급·나이·남녀·학력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타자녀교육은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자기 자녀의 교육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공도자승배는 공도에 헌신한 사람을 우대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더 많은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며, 각자도 공도자를 본받아서 공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그 중에서 타자녀교육의 주지(主旨)는 「자기 자녀, 남의 자녀를 막론하고 국한 없이 가르쳐서 교육을 융통시키자는 것」¹⁰⁾이다. 교육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자기 자녀의 교육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즉 가정·사회·국가에서 교육을 결함 없이 고루 시키게 되면 자연 교육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개혁과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첩경이 된다. 인류문명의 후속세대인 모든 후진을 국한 없이 교육하자는 의미에서 ‘타자녀교육’을 제창한 것은 교육 양극화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교육관이라 할 수 있다.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다는 의미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자녀교육도 포함된다.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도 학문만이 아니라 정신교육, 도덕교육 등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타자녀교육의 조목

1.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조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낳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요,
2. 국가나 사회에서도 교육기관을 널리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요,
3. 교단(敎團)에서나 사회·국가·세계에서 타자녀교육의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적을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이니라.¹¹⁾

3. 강자 약자의 진화(進化)상 요법

양극화는 두 극단을 전제로 하고 둘의 대립적 구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어느 한쪽의 상실이나 보상을 통해서 박탈감을 해소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소태산은 「세상에는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으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니라」¹²⁾고 가르치며 부모가 갓난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강자는 약자를 아끼고 사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느니라」¹³⁾고 분석하면서 강과 약의 상대관계를 불가피한 요소라고 보았다. 하지만 영원한 강과 영원한 약은 없으며, 강이 변하여 약이 되고 약이 변하여 강이 되는 이치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강과 약이 서로 적대적 대립으로 투쟁을 일삼을 경우 함께 멸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과 약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관계임을 자각하여 강자는 약자를 이끌어주고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 강이 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강자 약자가 다 같이 항상 발전하는 길이다.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은 갈등과 투쟁의 사회구조를 상호 발전하는 진화의 구조로 전환시키자는 논리이며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그런 방향으로 바꿔갈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모두 함께 발전하는 공생공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도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에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타해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¹⁴⁾

4.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소태산은 시대상황을 통찰하고 사회의 병리현상을 진단하며 지도자로서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아 병든 사회와 그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했다. 먼저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로서 “①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 ②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는 것, ③지도 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않는 것, ④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써 교화할 줄을 모르는 것, ⑤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익심이 없는 것”을 예시했다. 그리고 병든 사회의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 부패한 사회,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병든 사회의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그 병을 완쾌하고 평화한 사회로 만드는 치료법으로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지 말 것, 지도 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써 교화를 잘 할 것, 자리(自利)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갈 것”을 처방했다.¹⁵⁾

또한 소태산은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우리는 한갓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문명에만 도취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애의 영향이 어떠한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病脈)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세도(世道)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바 이니라」¹⁶⁾면서 다음 <표 2>와 같이 사회적 병리현상을 진단했다.

또한 소태산은 세상에 “①원망병, ②의뢰병, ③불합리한 차별병, ④안 가르치는 병, ⑤협심병”이 들었다고 진단하였다. 그 병에 대한 약방문으로써 “①감사생활을 하게 하면 그 원망병이 나을 것, ②무슨 방면으로든지 제 자력을 세워 살게 하면 의뢰병이 나을 것, ③나라나 사회의 제도가 지자본위로 되어 인재를 잘 등용시키면 그 차별병이 나을 것, ④모든 사람이 남의 자녀라도 내 자녀같이 잘 가르치면 그 안 가르치던 병이 나을 것, ⑤큰 나를 발견하여서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되고 너른 세계 위하는 것이 내 집안 위하는 것이 되는 줄을 알게 하면 그 이기주의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자신을 병든 세상과 병든 사람들을 전문 치료시켜서 이 세상을 평화 안락한 전반세계로 만드는 의사로 자처했다.¹⁷⁾

<표 2> 소태산이 진단한 사회적 병리현상

사회적 병명	사회적 병리현상
돈의 병	인생의 온갖 향락과 욕망을 달성함에는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의리나 염치보다 오직 돈이 중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모든 윤기(倫氣)가 쇠해지고 정의(情誼)가 상하는 현상
원망의 병	개인·가정·사회·국가가 서로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저 편의 잘못만 살피며,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나의 은혜 입힌 것만을 생각하여, 서로서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써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현상
의뢰의 병	수백 년 문약(文弱)의 폐를 입어 이 나라 사람에게 더욱 심한 바로서 부유한 집안 자녀들은 하는 일 없이 놀고먹으려 하며, 자기의 친척이나 벗 가운데에라도 혹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의세하러 하여 한 사람이 벌면 열 사람이 먹으려 하는 현상
배울 줄 모르는 병	사람의 인격이 그 구분(九分)은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지라 마치 벌이 꿀을 모으는 것과 같이 어느 방면 어느 계급의 사람에게라도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몸을 굽혀 그것을 배워야 할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제 각기 되지 못한 아만심에 사로잡혀 그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수가 허다한 현상
가르칠 줄 모르는 병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지식을 사물에 활용할 줄 모르거나, 그것을 펴서 후진에게 가르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알지 못함과 다름이 없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혹 좀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만(自慢)하고 자긍(自矜)하여 모르는 사람과는 상대도 아니하려 하는 수가 허다한 현상
공익심이 없는 병	과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개인주의가 은산철벽 같이 굳어져서 남을 위하여 일하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드물 뿐 아니라 일시적 어떠한 명예에 끌려서 공중사를 표방하고 무엇을 하다가도 다시 사심의 발동으로 그 일을 실패 중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모든 공익 기관이 거의 폐쇄하는 현상

III.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원불교의 교육활동

1. 전재동포구호사업

소태산은 일제의 침략정책으로 인하여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가난에 직면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9인 제자들과 함께 저축조합을 결성하고 금주, 단연, 절약절식, 허례폐지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방언공사(防堰工事)¹⁸⁾를 전개했다. 1년여 만에 2만6천여 평의 농토를 개간하여 ‘정관평(貞觀坪)’이라 명명하고 새로운 살림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유지답을 조성하여 경작하는 공동출역을 통해서 경제적 기초를 확립하는 영육쌍전(靈肉雙全) 이사 병행(理事並行)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다. 소태산은 원불교의 3대 사업목표를 교화·교육·자선으로 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제도를 개혁하고 예법을 혁신하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낙원세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원불교는 1916년 개교 이후 교육사업과 자선사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원상의 진리를 실천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개교 100주년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불교는 교육과 자선을 교화 못지않게 중차대한 비중을 두고 활동했다. 여기서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원불교가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는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43년 6월 1일 소태산이 열반한 후, 법통을 계승한 정산종사(송규, 1900-1962, 이하 ‘정산’이라 칭함.)는 광복 이후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기여하고자 『건국론』(1945)을 저술했다. 『건국론』의 요지는 「정신으로써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써 줄기를 삼으며 국방, 건설, 경제로써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서 결과를 얻어서 국력을 배양하자.」¹⁹⁾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평등히 보호하여 각자의 자유와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하자는 것이요, 외부의 혁명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혁명을 하자는 것이요, 유산자의 자발적 선심으로써 공익기관이 점차 불

어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생활이 자연 골라지게 하자는 것이요, 관영과 민영의 사업을 차별하지 아니하여 한 가지 건국에 협력하게 하자는 것이요, 생활의 자유를 좀 구속하는 중에도 근로자의 대우를 분명히 하여 공사간 진화의 도를 얻게 하자는 것이니라.」²⁰⁾고 천명했다.

그리고 좌파나 우파의 이념을 떠나 무아봉공(無我奉公)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재동포구호사업(戰災同胞救護事業)과 한글보급운동을 위주로 건국사업을 전개하였다. 만주·일본·중국 등 해외귀환 전재동포를 대상으로 익산·서울·부산·전주 등 4곳에서 최장 14개월 동안 식사제공·의료서비스보조·사망자 장례 등의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했다. 아래와 같은 「불법연구회 전재동포원호회 설립취지서」에 원불교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으며 구체적인 주요활동 내역은 <표 3>과 같다.

목하(目下)에 유일한 최급무는 전재동포 원호문제이니, 남에서 일본, 북에서 만주·중국 등지로부터 조수밀리듯하는 전재동포가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피곤함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노지(露地)에 즐비하게 쓰러져 있는 참혹한 현상을 볼 때에 목석이 아닌 사람으로서야 어찌 이에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을 바이라.

<표 3> 전재동포구호사업 주요사항

구분	주요활동내용 및 비용
서울 구호소	· 위치: 서울 남대문동 5정목 70번지(옛 세브란스병원 앞) · 활동기간: 1946년 3월 31일까지 · 임원 46명, 소요경비 50만원, 쌀 420가마, 잡곡 240가마, 일용품 27,892명분, 잡곡 240가마 · 급식 42만명, 숙박 11만명, 의복제공 3천건, 응급 치료 400명, 사망 치상 78명, 입원 치료 100명, 출산 조력 12명
이리 후생원	· 장소: 이리역전 · 활동기간: 1946년 10월 20일까지 · 총부임원 및 학원출동 105명, 식량 890가마, 급식 제공 485,829명, 출산 조력 20명, 사망 치상 100명
전주 후생부	· 부(府)관할 구호소 · 활동기간: 약5개월 · 교역자 및 교도 45명
부산 후생원	· 장소: 경남·초량·당리 · 활동기간: 1945년 12월(출동일수 약1만 수천일) · 구제반 조직, 3만5천원 기탁, 근로동원인원 약5백명, 근로예산 약80만원, 활동기간 교통비·물품 등 약40만원

또한 건국사업의 일환으로 한글보급운동을 전개했다. 지역사회의 문맹퇴치를 위해 원불교 교무들을 중심으로 한글 교습활동을 수행한 것이다. 한글보급을 위해 원불교 각 교당의 교무들에게 한글 강습을 시킨 후, 각 지역사회에서 문맹 퇴치운동을 전개했다.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시행된 한글보급운동은 1960년대 초반까지 농촌교당의 야학으로 발전되었다. 각 교당에 야학원이 설치되어 활발하게 교육에 참여하면서 보조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고 이들 중 일부 기관은 후에 익산고등공민학교, 도양고등공민학교(현 해룡중·고등학교) 등의 정식 중등교육기관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했다. 한글보급운동으로 시작된 교육활동은 이후 원불교 교육사업의 기반이 되었다.

2. 학교법인 원광학원

타자녀교육에 입각한 교육평등을 기치로 내걸고 원불교의 교육사업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초기의 영산 학원·총부 학원 및 총부를 비롯한 각처의 야학원 사업과 광복 직후의 한글강습소 및 학림 교육, 야학 등을 거쳐서 원불교 개교정신과 국가의 교육이념을 조화한 본격적 교육사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원불교에서 설립한 각급 학교를 분류하여 제시하면 <표 4>와 같고 그 중에서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필두가 된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1976년(원기61) 원광보건대학교, 2002년(원기87) 원광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원광대학교와 원광중·고등학교를 모두 관장하는 법인으로 통합 관리해 오다가 1990년(원기75) 8월에 원광학원에서 분리하여 학교법인 원창학원을 설립했다. 원창학원 산하 중등교육기관으로 원광중학교(1951), 원광고등학교(1954), 원광여자중학교(1960),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1960), 원광여자고등학교(1990)가 있다.

<표 4> 원불교 설립학교(국내)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대학교	계
설립학교 수	-	9	10	4	1	24

원광대학교(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는 학교법인 원광학원 산하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원불교 교육기관의 대표격에 해당한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정신을 바탕으로 과학과 도학을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새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 양성을 건학의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원광대학교의 전신(前身)은 ‘유일학림(唯一學林)’으로 1946년(원기31) 5월 1일 원불교 중앙총부 구내에 설립되었다. 당시의 편제는 중등부와 전문부로 발족되어 창설 5년이 지난 1951년(원기36) 6월 중등부는 원광중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해 9월 원광대학의 설립인가를 얻어 원불교 개교정신과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이념을 조화한 교육 사업의 발전을 꾀하게 되었다. 160만㎡의 교지에 15개 단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9개 대학원과 10개의 부속병원을 갖추고 2만5천여 명이 학문연구와 교육 및 진료에 전념하고 있다.

한편 심각한 양극화 현상의 우선순위를 꼽아보면 “자산의 양극화(29%),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24.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양극화(20.5%),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교육기회의 양극화(17.2%), 출신대학에 따른 취업기회의 양극화(9.2%)”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광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취업기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게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1학과 1기업 창업 프로젝트’를 <표 5>와 같이 시행하고 있다. 수학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창업의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창업은 물론 취업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원광대학교 학과 및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자산, 산학협력 조직과 창업지원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과 정보·기술 자산을 One-stop Start-up assistance System으로 구축하여 성공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산·연·관(學·産·研·官)의 협업역량을 응집하여, 지역 내 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시장동향 정보제공, 투자유치·기술협력, 법인설립 자문, 사업파트너 알선, 마케팅 등 체계적인 해외진출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표 5> 원광대학교 1학과 1기업 창업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내용
자율특화프로그램	• 창업교육 실시 • 창업동아리 운영 관리 • 대학의 창업생태계 조성
일반인 실전 창업강좌	•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창업아이템사업	•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 • 멘토링 서비스,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비용 등 지원

3. 특성화학교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불교가 남다른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 교육 분야는 특성화교육기관 의 설립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산성지고등학교와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영산성지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낸 최초의 학교이다. 이후 최초의 특성화중학교인 ‘성지송학중학교’도 동일 학교법인 영산성지학원에서 설립하였으므로 원불교가 사실상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산성지고등학교의 전신은 영산학원 부설 영산고등공민학교이다. 영산고등공민학교는 1978년 12월 29일 정식 인가를 받고 신입생 50명을 모집하여 이듬해(1979) 3월 5일에 개교했다. 영산고등공민학교는 영산선원에서 성지 부근의 청소년 선도와 교화를 목적으로, 당시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모아 배움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시작했다. 그런데 선원에서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 주고, 교단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영산고등공민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얻어 1984년 3월 ‘영산성지학교’가 설립되어 개교하게 되었다. 1987년 영산성지학교는 종전의 인문계 교육위주의 교과과정에 주력했던 것을 기술교육 병행,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러한 교육방향의 전환은 원불교 성지라는 특수여건과 벽촌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 사회부적응 학생을 위탁받아 사회적응능력을 길러 정상적인 사회활동에의 복귀를 돕고, 벽지의 극빈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어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영산성지학교는 지역적 특색을 살려 도자기공예, 다원조성, 분재 및 난 재배 등 기술교육을 병행했다.

영산성지학교의 인성중심, 학생중심교육의 열린교육은 한국판 섬머힐(Summer Hill)로 각광받아 방송 및 신문 잡지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이러한 열린교육이 성공을 거두면서 1996년 6월 7일 교육부장관은 영산성지학교를 공식 방문하여, 사회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주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열린교육·인성교육·방과 후 교육활동 등 영산성지학교의 교육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일치함을 강조하면서 원불교의 종교이념을 바탕으로 한 영산성지학교의 교육은 더 나아가 전원 기숙사생활을 통한 공동체의식함양, 노작체험의 교육은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표본으로 대안학교를 보는 것 같다고 격려했다.

1997년 12월 26일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고교졸업이 인정되지 않는 각종학교로부터 정식으로 고교졸업이 인정되는 정규 특성화고등학교 제1호로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영산성지학교에서 ‘영산성지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1998년 3월 10일 국내 최초의 대안학교인 영산성지고등학교가 개교했다. 또한 동년 3월 19일 영산성지고등학교는 ‘대통령 정책보고’ 중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우수사례로 뽑혀 학교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2000년에는 미국 Eagle Rock School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동년 7월 11일에는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문화방송이 주최한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대상’에서 단체상을 수상했다.²¹⁾

한편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그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남한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불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탈북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남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2006년 3월 1일 한겨레중·고등학교(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를 설립하였다. 한겨레중·고등학교는 2008년 1월 21일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청소년반 전면위탁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명실 공히 북한이탈 청소년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성화학교라고 평가받는다.

한겨레중·고등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師弟同宿) 장기간의 학습공백을 메우며 새로운 교육체제에서의 학습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학령과 학력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북한교육의 특징을 파악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와 제도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²²⁾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서 일반교과 교육과정은 물론이요 정서안정 교육과정, 직업진로 교육과정, 사회문화적응 교육과정, 애프터스쿨 교육활동 등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직업진로 교육과정은 실험실습 중심의 과학교과목, 정보소양교육을 위한 정보교과, 다양한 진로 직업교육을 위한 교과목(제과제빵, 피부관리 및 메이크업, 헤어 디자인, 바리스타, 중장비, 요리, 컴퓨터 기능사 등)을 개설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한 청소년의 통일 어울림 행사(가정과전, 교류학생)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이 해소되었으며, 정기적인 지역사회교류와 민간사회단체 통일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주민 등의 이해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겨레중·고등학교를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학교 교육을 위한 통합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 교수학습방법개발센터를 경영하고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지원 네트워크 형성(생활지원, 경제지원, 부모가족결연, 취업우선보장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²³⁾

한겨레중·고등학교는 2013년부터 유네스코 협동학교로 지정되어 교육과정 재구성, 민주·시민의식교육 등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힘쓰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세대 간 형평성, 양성평등, 사회적 관용, 문화다양성, 빈곤퇴치, 환경보존,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 등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이념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의 구조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4. 세계봉공재단

세계봉공재단은 2014년 5월 법인설립허가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았다. 이어 같은 해 9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허가(기획재정부)를 받으면서 목적사업의 주춧돌을 놓았다. 서울특별시도 2015년 1월 세계봉공재단의 기부금 모집계획을 허가했다. 세계봉공재단의 2016년 주요 사업은 빈곤지원사업과 질병지원사업이다. 빈곤지원사업은 방학 중 학교급식 중단으로 점심을 먹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사업이고, 질병지원사업은 네팔 지진피해 주민 지원사업으로 질병과 배고픔에 고통 받는 어린이를 지원한다.

세계봉공재단의 사업 중 ‘세계활동 단체지원’이 있다. 이 사업은 해외지원 활동을 하는 교단 내 (사)삼동인터내셔널(www.sdi.or.kr), (사)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www.africafuture.org), (사)한울안운동(www.hanuran.or.kr), (사)평화의 친구들(www.peacefriends.org), (사)원불교청수나눔실천회 등의 사업을 후원한다. 원불교에서는 이를 위해 2014년 12월 해외지원 단체가 참여하는 ‘세계봉공법인협의회’를 발족했고, 2015년 지원공모사업과 해외의료 수술사업 공모를 결의했다.²⁴⁾

그 중에서 삼동인터내셔널은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이념과 철학의 바탕 위에 주변 저개발국가의 지속

발전 가능한 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2008년(원기93)에 출범한 국제구호단체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수 공급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축산발전사업, 교육사업, 녹색성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복지를 실행하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인재양성사업에 초점을 맞춰 향후 그들이 자국의 지역발전을 위해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삼동인터내셔널은 네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등 저개발국가의 교육낙후지역에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활동지역에 초·중·고등의 종합교육시설을 설립, 지원하고 빈곤아동을 모아 아이들의 배움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회의 큰 일꾼으로 나아갈 현지 대학생 및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발전을 돕고 있다.²⁵⁾ 삼동인터내셔널은 2015년 9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는 단체로 선정됐다. 명실상부한 유엔 NGO 단체로 인정됨에 따라 각종 국제 활동을 하는데 유엔의 중재 및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사)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허가번호 345호, 1999.6)를 받았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02.7.20)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에 등록된 NGO단체이다. 현재 스와질랜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에이즈 면역증강제 제공, 급식, 지하수 개발 등 단기적 지원에서부터 전기, 자동차 수리, 가축공예 등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으로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스와질랜드와 라마코카에 각각 유치원을 설립하여 어린이 교육과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2015년 현재 스와질랜드 16회, 라마코카 12회 졸업식을 가졌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컴퓨터, 태권도, 풍물놀이,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1~2년간 직업기술훈련(위탁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취업을 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하여 경제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IV. 결어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은 갈등과 분열이며 갈등과 분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단연 양극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이상향인 ‘광대무량한 낙원’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해야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원불교 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정리한 연구이다. 먼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원불교의 교리적 근거는 사은 중 부모은의 무자력자보호의 도와 동포은의 자리이타, 사요의 타자녀교육,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이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강자와 약자가 상생상화하고 진급하기 위한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원불교의 구체적인 역할을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사회복지 활동이나 경제정의운동, NGO활동 등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실천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육 분야가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매우 크게 기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축조합과 방언공사로 무산자들의 경제적 토대를 스스로 마련하고 개교한 원불교는 전재동포구호사업 및 한글보급운동을 필두로 학교법인 원광학원을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인 영산성지고등학교는 물론이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대안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설립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더불어 원광대학교의 1학과 1기업 창업 프로젝트와 (사)삼동인터내셔널, (사)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의 저개발국가 교육낙후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도 매우 주목된다. 출신대학에 따른 취업기회의 양극화와 세계적인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저축조합을 계승 발전한 현대적 모델운영 등 원불교의 특색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극복방안을 개발하거나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쉽다. 양극화 현상이 초래된 배경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무한한 탐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본주의에 있음에도 이

에 대응하여 정면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원불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원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관과 경제관을 확립하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전개하며 종교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와 종교가 동등한 사회구성의 요소로서 국민생활을 발전시키는 각각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자는 '정교동심(政教同心)'에 입각하여 역사의식을 함께 가지고 공통의 시대인식과 사회인식을 가지며 실천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약

본 연구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원불교의 교리와 역사를 살펴보고 교육의 관점에서 원불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원불교의 교리적 근거는 사은 중 부모은의 무자력자보호의 도와 동포은의 자리이타, 사요의 타자녀교육,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이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강자와 약자가 상생상화하고 진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고 본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원불교의 구체적인 역할을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원불교는 저축조합, 방언공사, 전재동포구호사업 및 한글보급운동을 필두로 학교법인 원광학원을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인 영산성지고등학교는 물론이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대안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설립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더불어 원광대학교의 1학과 1기업 창업 프로젝트와 (사)삼동인터내셔널, (사)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의 저개발국가 교육낙후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도 매우 주목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저축조합을 계승 발전한 현대적 모델운영 등 원불교의 특색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극복방안을 개발하거나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쉽다. 따라서 일원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관과 경제관을 확립하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전개하며 종교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양극화, 원불교,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원광대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References

- 윤상철 외, 『더불어 사는 지혜 함께 푸는 양극화』, 국정홍보처, 2006.8.17.
 이공전, 『대종경 선외록』,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5.
 원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편, 『원불교대사전』, 익산: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원불교 정화사 편,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1977.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한국사회 양극화현상과 불교의 역할』, 2012.
 권이종,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법·제도보완 방안」, 통일부·(사)한국청소년연합, 2008.
 김귀성, 「원불교 교육평등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13집, 익산: 원불교사상연구원, 1990.
 김성건, 「IMF 사태 이후 한국 사회문제와 개신교의 대응」,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56집, 익산: 원불교사상연구원, 2013.

- 김영두, 「평화원리로 본 강자약자 진화상요법」,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5집, 익산: 원불교사상연구원, 2007.
- 박영근·구동무·김상우, 「공교육 강화를 통한 중산층 안정기반 구축과 확대」, 『마케팅논집』 제19권 2호, 2011.
- 박용덕, 「소태산의 조합운동과 길룡리 간척사업에 관한 연구」, 『정신개벽』 제7·8집, 익산: 신통교학회, 1989.
- 서운, 「사회구원의 차원에서 본 개교의 동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13집, 익산: 원불교사상연구원, 1990.
- 오명선,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명」, 『복음과 실천』, 2006 가을호.
- 오세영, 「원불교 사회복지의 형성, 그 특징과 의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1집, 익산: 원불교사상연구원, 2014.
- 이창곤,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 『종교,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다』,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3.
- 조기룡,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교단의 역할」, 『대각사상』 제19집,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3.
- 홍정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모색」,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6.8.11.
- 통계청,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19.10.29.
- 「원불교신문」 1811호, 2016년 08월 19일.

Footnotes

- 1) 양극화는 “①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차이를 나타내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 ②둘 이상의 물체나 사람 또는 집단이 일치될 수 없는 경향성을 띠면서 분리되는 현상. ③사회의 제반 세력이 서로 대립되는 2개의 극(중심핵)으로 분화, 집중되는 현상. ④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나 정책을 놓고 양편으로 대립하여 조직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 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713&cid=46634&categoryId=46634> 참조.
- 3) 중산층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통계청은 균등화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상~150% 미만”인 사람들을 ‘중위소득계층(middle income class)’이라 부르고,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 4) 통계청,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19.10.29. 27쪽 참조.
- 5) 『대중경』, 제12 실시품 5장 참조.
- 6) 『정전』, 제1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 7) 『정전』,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 제3절 동포은 참조.
- 8) 『정전』,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 제2절 보모은 7. 부모 배은의 결과.
- 9) 『정전』,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 제3절 동포은 7. 동포 배은의 결과.
- 10) 『정산종사법어』, 제6 경의편 9장 참조.
- 11) 『정전』, 제2 교의편 제3장 사요, 제3절 타자녀교육.
- 12) 『대중경』, 제4 인도품 24장 참조.
- 13) 『정전』, 제3 수행편 제13장 최초법어, 3.강자·약자의 진화(進化)상 요법.
- 14) 위와 같음.

- 15) 『정전』, 제3 수행편 제15장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참조.
- 16) 『대종경』, 제2 교의품 34장 참조.
- 17) 이공전, 『대종경 선외록』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5), 11. 제생의세장(濟生醫世章) 1절 참조.
- 18) 1918년(원기3)부터 1년간 소태산과 제자들이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앞 해안 갯벌을 막아 농토를 만든 공사.
- 19) 『정산종사법어』, 제3 국운편 4장 참조.
- 20) 『정산종사법어』, 제3 국운편 14장 참조.
- 21) 원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편, 『원불교대사전』 (익산: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 22) <http://han.hs.kr/?act=doc&mcode=1027> 참조.
- 23) 학생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생활과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98%를 나타내고 있다.(권이중,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법·제도보완 방안」, 통일부·(사)한국청소년연합, 2008, 27쪽 참조.)
- 24) “해외지원 단체 후원하는 세계봉공재단, 『원불교신문』 1811호, 2016년 08월 19일.
- 25) http://sdi.or.kr/index.php?mid=page_dcVt39 참조.